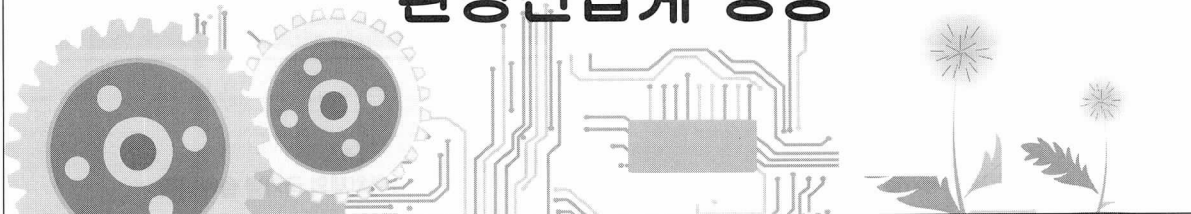


환경산업계 동향



버터플라이이펙트, 유아용 살균스프레이 '세퓨' 출시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걱정이 해소될 전망이다.

감염예방전문회사 버터플라이이펙트(대표 오유진)는 슈퍼박테리아를 제거하는 유아용품 살균스프레이 '세퓨(500ml)'를 출시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최근 겨울철에도 식중독이나 장염이 발생하면서 환경과 위생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유아의 경우 본능적으로 손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 입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번에 출시된 '세퓨'는 감기, 식중독, 피부병, 눈병 등을 유발하는 병원성 세균뿐만 아니라 항생제로 인해 더욱 강력해진 항생제 내성균, 일명 슈퍼박테리아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다.

기존의 살균제들과 달리, 물처럼 투명하고 냄새가 전혀 없어 사용하기 편리할 뿐만 아니라 자극이나 독성이 없어 아이들의 손이 닿는 곳이라면 어디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아이들이 주로 만지는 곳이나 용품들에 세퓨를 수시로 뿌려주거나 장난감 등의 용품을 정리한 후 살짝 뿌려놓기만 하면 표면의 세균이 제거돼 청결하고 안전한 상태로 사용할 수 있다.

구일전자, 전자제품용 탈자기 개발 성공

구미산업단지의 프레스 금형업체인 구일전자(대표 김

영철)가 오디오·비디오 기기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을 없애는 전자제품용 초경량 탈자기 개발에 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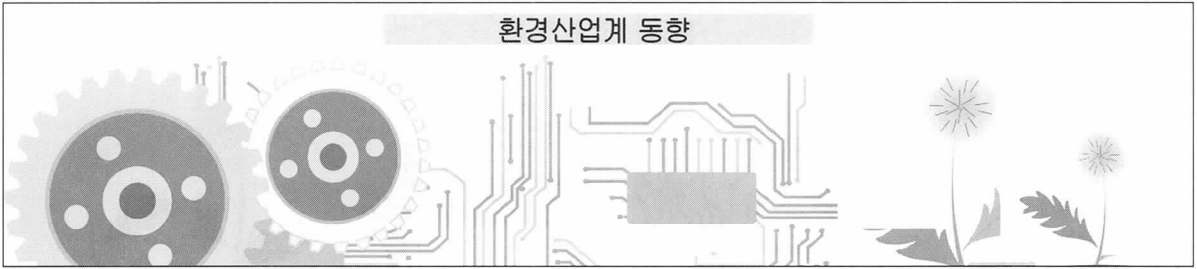
이 회사가 개발한 신제품 탈자기 '매직완드(Magic Wand)'는 기존의 금속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류자기를 없애는 장비를 응용해 새롭게 개발한 것으로 세계 최초의 오디오·비디오용 탈자기다. 길이 250mm 폭 20mm의 막대형으로 무게는 350g에 불과하지만 우수한 자기 제거력으로 2~3번 스치기만 하면 1초 내 완벽하게 악성 자기장을 제거해 오디오·비디오 기기들이 본래 성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제품의 성능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오디오·비디오 기기들의 음질 및 화질 향상을 쉽게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효과적이다. 가격과 기능면에서 탁월한 경쟁력을 갖고 있어 이미 전문 오디오 시장에서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외국제품의 경우 40만~50만원대에 달하지만 구일전자 제품은 외국제품의 절반 가격인 데다 자기장을 완전히 제거해 준다.

외국제품은 탈자율이 60~70%에 불과하다. 손잡이는 부드러움과 미끄럼 방지를 위해 우레탄으로 코팅 처리해 안정성과 정밀도를 높일 수 있고 이상 온도 발생 시 이를 차단하는 이중 안전장치가 내장된 제품으로 유럽연합 전기안전규격 CE인증을 획득해 수출 전망도 밝다. 종업원 12명에 불과한 작은 회사가 세계 유일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기능의 탈자기를 전문 생산하는 회사로 성장한 배경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혁신클러스터 지원사업의 효과가 컸다.

이 회사가 개발한 탈자기는 지난해 구미혁신클러스터 추진단의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과제로 선정돼 1억원 상당의 지원자금과 금오공대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애로 기술을 해결했다.



(주)골든오일, 아르헨티나 유전개발 성공

산업자원부는 국내 석유벤처기업인 (주)골든오일이 아르헨티나 엘비날라르(El Vinalar) 광구에서 가채매장량 460만배럴 유전개발에 성공하는 쾌거를 올렸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전문석유개발회사인 (주)골든오일은 아르헨티나 엘비날라르 광구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운영권자로 참여하고 있다. 이달 시추를 완료하고 생산성 시험(DST: Drilling Stem Test)을 한 결과, 일산 2,500배럴 규모의 부산물이 전혀 없는 100% 양질의 원유 생산에 성공했다.

(주)골든오일은 지난 2004년 2월 자본금 10억원, 직원 17명으로 출발한 국내에서는 보기드문 중소기업의 전문 자원개발업체로 구희철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 7명 모두가 자원공학을 전공한 젊은 석유개발 엔지니어들로 구성됐다. 회사설립 이후, 엘비날라르 광구를 비롯한 AAB, RMO 광구 등 3개 광구에서 탐사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또 작년 11월에는 아르헨 LDP 광구 입찰에 성공하는 등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활발히 유전개발사업을 전개해 왔다. 올해도 4개의 신규 사업 참여를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유전개발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 투자자본이 많이 소요되고 risk가 커 일반 대기업들 조차 사업참여를 망설이는 사업”이라면서 “이번 유전개발 성공은 현재 사업참여를 검토중에 있는 국내 자원개발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진출에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웰빙, 숲의 예술로 거듭나다

최근 웰빙 열풍과 함께 숲이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한빛숯자기(대표 장중환)은 숯 성형물의 제조방법 및 장치를 특허 출원, 다양한 생활용품을 개발해 지난 1월달 런칭했다. 한빛숯자기는 전북지방중소기업청 벤처기업으로 지정돼 지원을 받고 있다. 다기세트와 부부잔, 조명스탠드, 인테리어마감재, 유골함 등의 상품을 출시했다.

특히 장 대표는 현대 사회에 국제기능 올림픽 입상 이력이 있는 기능장으로 원목을 직접 깎고, 숯으로 성형하는 등 오랜 시간의 수공업을 통해 제품을 만들고 있다. 수공품이라 직접 주문생산방식을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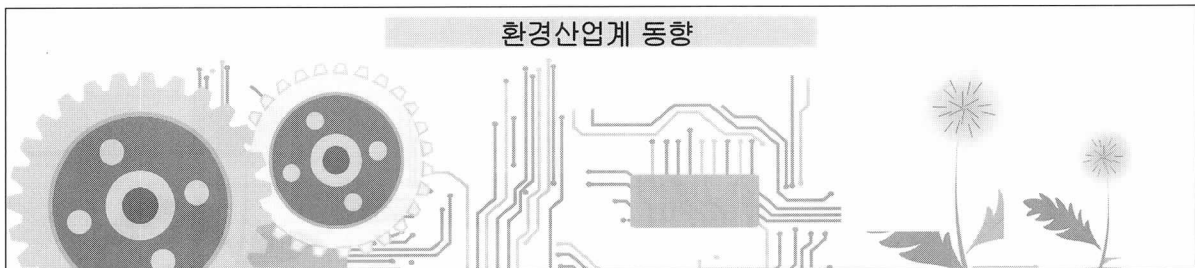
한빛숯자기의 장 대표는 “앞으로는 점차 상품 시장을 넓혀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 제품인 숯으로 생활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특히 최근 들어 아토피 등 환경호르몬으로 인해 현대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삼양제넥스, “친환경 건강식품 직접 개발해요”

삼양제넥스가 건강식품 전문매장 ‘굿쌈’ 지방 1호점 오픈으로 매장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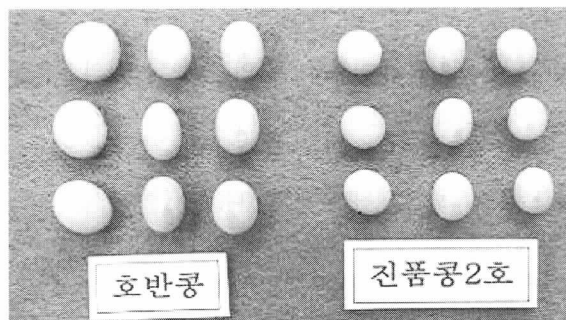
2006년 12월 은평 응암점을 오픈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 진출에 나섰던 삼양제넥스가 강동 천호점, 구로 개봉점, 안양 중앙점을 오픈한 데 이어 이번에 지방 1호점인 울산 신정점을 오픈했다. 특히 삼양제넥스는 울산 신정점 오픈을 계기로 수도권 뿐 아니라 주요 지방 도시 중심으로도 매장 확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굿쌈’ 울산 신정점은 오피스 상권에 위치해 바쁜 직장인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추천해주는 고객 상담 프로그램을 구비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굿쌈’ 매장은 건강식품 30여 종을 비롯해 유기가공식품 70여 종 등 총 100여 종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제품들은 크게 장 건강제품군, 영양보충군, 기능성제품군, 미용·다이어트군, 활력제품군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주요 제품으로는 엑스리고 프락토 올리고당, 6년근 홍삼진, 셀크롬E(항산화 건강기능식품) 등이 있다.

강원도농업기술원, 웰빙용 '호반콩' 개발



강원도농업기술원(원장 민황기)은 지난 1995년부터 콩 신품종육성 사업에 주력한 결과 11년간의 연구결과 끝에 강원도 지형과 기후에 적합한 신품종 '호반콩'을 개발, 품종출원했다. 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호반콩'은 기존 장류용 재배 품종인 '진품콩 2호'보다 개화가 6일 정도 빠르고 비린내가 적은 중만생 품종이다.

특히 백립중이 29g이나 되는 대립종으로 소비자들의 대립 선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 도내 콩 재배농가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호반콩'은 두부수율, 청국장수율, 메주수율이 높아 장류 등의 가공용으로 적합하다.

특히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인 기능성 물질인 아이소플라본 성분과 총아미노산의 함량이 기존 진품콩 2호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웰빙식단에 적합해 소비자들의 사랑을 크게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ASE테크, 정전기-카드 한 장으로 막는다.



ASE테크는 정전기를 예방하는 카드를 개발, 출시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ASE테크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된 카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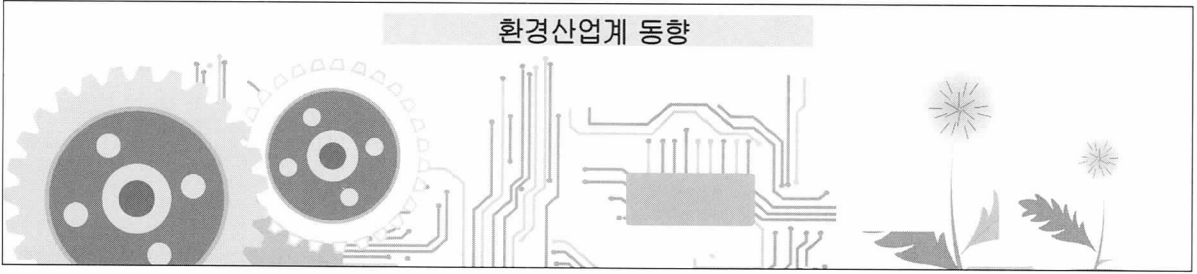
각종 정전기쇼크로부터 예방할 수 있다. 정전기가 심한 사람은 자동차 등 금속물체에 1~2초정도 접촉하면 자동차나 전자제품을 비롯한 반도체손상 그리고 화재, 폭발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저가 상품이라 홈페이지나 주문전화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디자인이 자유로워 회사 홍보 및 판촉 그리고 명함으로도 사용 할 수도 있다. ASE테크 관계자는 "이 제품을 앞으로 새롭게 발급될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에 기술을 접목시켜 국가가 개인정보보호사업과 정전기로 인한 안전사고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관련사항은 ASE테크(02-2605-6013)나 홈페이지(<http://www.asecard.c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포스코, 포항에 국내 첫 발전용 연료전지 공장

포스코가 포항에 국내 첫 발전용 연료전지 공장을 짓는다. 포스코는 지난 4일 "세계에서 유일하게 연료전지를 상용화한 미국 FCE(Fuel Cell Energy)사의 기술을 지원 받아 내년 초 연료전지 공장을 설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료전지는 대기 중의 수소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미래 청정에너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포스코는 FCE사와 사업제휴 협약을 맺고 1단계로 300억 원가량의 사업비를 투입해 내년 공장 건립에 나설 계획으로 전해졌다. 공장 건립대상지는 포항 흥해읍 영일만항 배후공단과 포항공단 4단지 가운데 한 곳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포스코는 또 초기에는 핵심기술을 FCE사로부터 지원받겠지만 관련 연구소도 건립해 3년 내에 연료전지 생산 일체를 완전 국산화한다는 방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라도 그 양에 비해 강한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대량 누출 사고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

이에 석유관리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코자 황성분이 포함되지 않은물질을 대상으로 성능과 안전성 등의 적합성 시험을 거쳐 새로운 부취제로 개발할 계획이다.

한국석유품질관리원 관계자는 “내년까지 새로운 부취제 개발을 완료하고, 향후 LPG 품질기준 개선과 정책 수립에 근거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새 LPG 부취제 개발 착수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사장 김기호)은 현재 액화석유가스(LPG)에 투입되고 있는 부취제에 의한 대기오염 방지코자 이를 새로운 물질로 대체하는 연구개발에 착수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부취제는 원래 냄새와 색깔이 없는 LPG에 첨가하는 화학물질로 누출을 감지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계란이 썩는듯한 독특한 냄새를 지니고 있다.

석유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이는 황화합물로 인체와 대기환경에 유해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을뿐만 아니라 황화합물은 스모그나 산성비 등의 원인 물질로 기관지염과 천식 등을 유발한다.

또한 머캡탄류는 끓는점이 부탄이나 프로판 가스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공기 중으로 잘 휘발되지않아 용기나 탱크 안에 LPG와 적정 비율로 섞여 있다가도 LPG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잔류량이 늘어나게 된다.

특히 잔류량이 많은 상태에서는 LPG가 조금만 누출되

나야L&H바이오, ISO22000 인증 획득

우수한 기능성식품 생산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이 확보됐다.

나야L&H바이오(대표 김금희)는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독일의 MSA 인증원으로부터 ISO22000인증을 바이오 기업 최초로 획득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ISO22000’은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등 기존 시스템에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결합한 형태의 품질경영시스템이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식품안전시스템으로 국제무대로 진출하려는 식품회사라면 대단히 주목해야 할 인증이다.

이 인증은 제품이 농장에서 식탁에 오르기까지, 농장에서 가공공정을 거쳐 건강기능식품이 생산, 유통될 때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식품안전시스템으로 제조사의 원료구매, 선별, 제조, 보관, 출하, 크레임 관리 등 모든 업무를 관리한다.

또한 기존 인증이 하지 못하는 직원들의 개인위생, 제품위생, 업무환경, 시설기준, 시설위생관리 등 식품안전에 요구되는 모든 요인을 보완한 식품안전에만 특화된 인증이다. ◀